

# “알면 뭐하나, 실천해야지”

## 동안거 결제 맞은 법주사 총지선원 월성 스님

11월 20일 경인년 동안거 입재를 앞두고 운수행각에 나섰던 남자들이 하나 둘 산문으로 모여 들었다. 해제 기간 마음껏 세상을 품고 온 스님들은 이제 시작되는 3개월의 동안거 기간 동안 용맹정진을 통해 '나'를 품으며 자신의 마음자리를 찾으리라.

동안거 입재를 이틀 앞둔 18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보은 법주사(주지 노현)에서는 안거를 방부를 들인 선객 맞이에 분주했다. 속세의 온갖 탐욕을 떨리 떠나 있다 하여 속리(俗離)라 불리고, 법이 머물러 법주(法住)라 불리는 속리산 법주사는 선지식인 금요·추담·월성·탄성 스님 등이 주석했던 고찰이다.

이번 안거에 법주사에는 큰절의 총지선원에 26명, 복천암 선원에 10명, 비구니선원인 수정암선원에 14명, 탑골암 대유선원에 15명, 공림사 감인선원에 13명 등 70여 남자들이 방부를 들이고 불퇴전의 용맹정진을 다짐했다.

총지선원 선덕 월성 스님과 선원장 덕암 스님이 산문을 들어서려는 남자들을 맞았다. 이곳을 찾은 결제대중은 안거 동안 새벽 3시~오후 9시 하루 10시간 참선과 방선을 해야 한다.

총지선원 선덕 월성 스님을 만나 총지선원의 유래를 물었다. 스님은 금요 스님을 13년간 시봉했고, 법주사에 40여 년을 머물며 복천암 선원장을 맡고 있다. “선방 이름이 다 똑같으면 안되니까 붙여진 이름 일 뿐”이라면서도 “총지는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답아 따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월성 스님은 “세간의 공부는 말·글을 통해 지식을 넓히는 공부이지만 선은 마음을 찾아 부처가 되는 공부”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은 형상이 없어 말·글로 표현되지 않으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내 말을 듣고 있는 그 눈이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좋고 나쁜 것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다. 마음을 쉬면 좋고 나쁜 것도 없고 그 것이 내 본심(本心, 마음자리)이다”라고 덧붙였다. 길흥화복이 모두 마음 씬씀이에 달려 있기에 마음은 모든 결과를 만드는 종자라는 법문이 이어졌다.

월성 스님은 “이 세상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남이 무엇이라 해도 진리만 좇아 산다면 진리를 빨리 깨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나’라는 생각조차 던져 버리고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월성 스님이 동안거 결제를 맞아 방부를 들이려온 수좌들을 맞고 있다.

공부에만 매진하라는 말씀이었다.

스님은 “재가자들은 수시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라”면서 “이미지도 실천하지 않으면 괜히 찾아와 나만 괴롭힌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과거가 우리가 사는 현재 모습이며, 우리가 어떻게 사는 지에 따라 미래·내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며 “이 셈법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로 법문을 마쳤다.

11월 20일(음력 10월 15일) 불기 2554년 동안거 입재식이 100여 조계종 선원을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2200여 수좌를 비롯한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불퇴전의 용맹정진에 돌입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성 스님,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에서 “참선공부는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온 천지를 불태워버리는 공부법이다. 결제라고 하여 고요한 경계에만 스스로를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활발한 선기(禪機)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썩은 물에 잠겨있는 것과 진배없다”며 치열한 정진을 당부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 조기룡의 사찰경영학 ⑦

### 저출산, 비상 걸어야 한다

많은 불교교역자들이 사찰성장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교회에서 하듯이 문 앞에 전단지를 걸어둘까, 길거리 포표를 해볼까 등의 고민도 한다. 그런데 반추해보면, 이러한 고민들은 대개 알게 모르게 신도수의 증가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즉 사찰성장이 양적 성장이라고 여기고 하는 고민들이 많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시 ‘사찰성장’이라고 하면 신도수의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을 먼저 연상할 것이다.

나 역시 사찰성장의 기본전제는 신도수의 증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못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자 사찰을 일단 찾은 연후에야 비로소 불자로서의 성숙도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늘 나는 사찰을 성장시키고자 함에 있어서 양적 성장에만 경도되어 기도와 수행 그리고 포교와 봉사 등과 같은 불자로서 보다 본질적인 성장인 질적 성숙을 가버려 여기거나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됨을 주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사찰성장이라는 용어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먼저, 양적 성장이란 개체 사찰의 신도수의 증가와 이에 수반되는 사찰의 외형 규모 확대 등이라 할 수 있다. 신도수의 증가는 근본적으로는 기존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세상에 흥포(弘布)함에 따라 새로운 신도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성장을 종교학계에서는 생물학적 성장, 전입성장, 회심성장 등 3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생물학적 성장(biological growth)은 부모의 종교를 계승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불자가 됨에 따라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 출산문제로 비상이 걸려 있다. 평균 출생아의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1970년에는 100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53%이었던 것이, 점점 줄어들어 2003년에는 1.19%인 49만 3천 명, 2020년에는 38만 명, 2050년에는 22만 9천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균 출생아의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향후 불자 수의 감소도 초래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생물학적 성장은 간혹

국가의 정상적인 인구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자녀들은 신심이 두터운 불자가 되나, 일부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다른 종교를 갖게 되거나, 결혼을 통해 다른 종교 공동체에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사찰이 생물학적 성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이 세상에서 불자의 비율은 점점 더 낮아질 여지가 많다.

전입성장(transfer growth)은 다른 사찰의 기존 불자가 이사 또는 특정 사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사찰을 옮겨오으로써 신도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전입사찰의 신도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전출사찰의 신도수는 감소한다. 전입성장은 일면 다른 사찰의 회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찰성장이라는 의미가 있다. 필자는 불교계의 전입성장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630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사찰에 다니기 전 종교 배경을 물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다른 사찰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75명으로 43.7%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성장은 신도가 전입한 단위 사찰로 보아서는 성장

한 것이나, 전체적인 불교교세로 보아서는 성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사찰의 불교교역자들은 전입성장으로 인한 단위 사찰 신도수의 증가에 매혹되어서는 안 된다.

회심성장(conversion growth)은 비불자가 마음을 돌이켜[回心] 삼보에 귀의하여 신도가 되는 것으로 가장 추구해야 할 사찰의 성장형태라 할 수 있다. 이 회심성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마음을 돌이킬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찰은 포교[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를 통한 성장을 당위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회심성장에 힘써야 한다.

이와 같은 회심에 의한 감소는 주로 값지 않은 신심 또는 사찰과 스님에 대한 낙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명목뿐인 불자들의 경우 쉽게 회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불자의 33.1%가 연 1~2회 정도만 사찰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이 불자라고 생각하면서도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22.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조사 자료는 타종교로 전향할 회심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불자가 많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 템플스테이가 에너지다

1면에서 계속

기업체에서의 호응 또한 좋다. 2009년 백양사사간부직 600여명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삼성광주전자 이용윤 인사과장은 “불교문화가 직원 감성회복 및 사기진작으로 창조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일반인들 중에 직장에서 실시하는 연수일환으로 템플스테이를 경험하고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찾게 됐다고 밝히는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효과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 방사 부족, 전문 특화 프로그램 부재

기업체 차원의 참여가 늘자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2010년부터 기업체 참가 현황을 집계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는 타종교계가 지적하는 정부예산 의존, 수익구조 개선, 홍보활성화의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명상과 상담 컨설팅 등이 함께 진행되는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해 불교계가 돈벌이에 나섰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실시하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첫째는 시설 문제다.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현황에 따르면 인제 백담사(300명 수준)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300명 수준), 감천 직지사(100명 수준)를 비롯한 주요 교구본사(50~70명 수준)를 제외하면 100~1000명에 달하는 기업의 연수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은 전무하다.

기업 연수는 100~1000명 규모로 진행된다는 것을 볼 때 일선 사찰에서는 최소 3~5회 씩 나눠 기업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유영희 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팀장은 “보통 기업체는 각기 연수원을 보유하고 있다. 템플스테이로 연수를 오는 경우는 전통사찰에서 불교문화와 자연을 체험하기 위한인데 전통사찰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공간을 만들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둘째는 전문 특화 프로그램의 부재가 꼽힌다. 지난 2009년 3월 개최된 제1회 템플스테이 학술제에서 발표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세부프로그

램의 다양성이 내국인들에게 가장 낮은 점수(3.83)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백담사가 진행하는 기업형 특화 템플스테이는 눈길을 끈다. 백담사는 6월 11~13일 수임자업체인 ‘더클래스 효성’을 시작으로 11월 4~5일 금융감독원 임직원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 백담사 특화 프로그램 첫 시도

백담사 템플스테이가 특별한 부분은 자체 연수국과 자회사 격인 연구기관 만해행복아카데미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오면 맞춤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는데까지 2주가량이 걸린다. 기업 참가비는 1인당 35~50만원 수준으로 일반인 참가비보다 월등히 높다.

템플스테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거점 사찰의 대규모 숙박시설 외에도 사업단과 종단 차원의 전문가 양성 및 전문연구과정을 개설하고 컨설팅 등 적극적인 홍보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덕현 기자

##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업 부른다

## 스님이 만든 생식

곡류 50%를 받아서킨  
효소 발아생식

- 1 타 생식에 비해 채소류, 해조류가 2배 이상 첨가되었습니다.
- 2 유기농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 3 99% 국내산 제품입니다.
- 4 돈을 벌기 위한 제품이 아닌 중생들의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불심 깊은 불자님  
 지역총판 모집합니다. 070-7629-5920



▶ 1일 1회 1포(40g) × 60포 (2개월분) **100,000원**

법정스님이 밝힌 영혼의 사리 99점!

# 法頂 스님 禪墨

무소유의 향기, 법정스님 선묵



무소유의 향기, 법정스님 선묵 출간!

## 法頂 스님 禪墨

Non-possessive Aroma Calligraphy by Bhikhu Bub Jeong

도서출판 두리해 발행 값 30,000원

무소유의 향기

**법정스님 선묵을 펴내면서**

법정스님의 글은 모든 사람이 알지만, 스님의 붓글씨와 그 글씨에 담긴 뜻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세월이 지나면 스님께서 붓장난으로 남긴 유물들이 사라질 것을 염려해 제게 주신 몇 점과 지인들이 간직한 서간과 목적 99점을 모아 스님의 선묵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편집자)

※ 책은 인터넷이나 대형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시찰용) 500부이상 2,000원



(일반용) 5,000원  
자세한내용은  
다음카페 <무소유법정스님> 참조



(시찰용) 500부이상 2,000원



(일반용) 5,000원  
자세한내용은  
다음카페 <무소유법정스님> 참조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56-11 지명장사 2층  
(사)맑고향기롭게 광주본부 <법정기념관>  
전화 : (062)224-0045, 529-9909  
E-mail : amital755@hanmail.net